

# 唐代 景敎의 傳來와 佛敎

吳弘禪

포교사회학과 교수

景敎란 기독교 사제인 네스토리우스(Nestorius)의 敎說과 그 주장을 따르는 일파에 대한 中國式 명칭이다.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몰려 이집트의 오아시스 마을에서 사망하고 그 추종자들은 시리아로 피신하여 거기서 정착하고 傳道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景敎라고 하는 이단으로 몰려 본거지인 콘스탄티노플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기독교의 일파가 唐朝에 中國에 들어온 사실은 여러 文獻 근거들을 통해서 볼 때 믿을 수 있다. 그러나 景敎寺院이 長安에 있었고, 신라 留學僧들도 長安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주장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본 고에서는 景敎와 佛敎가 관계되는 사안과 당시의 佛敎에 대한 왜곡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景敎』의 잘못된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하거나 직접 비판하는 가능하면 일은 피하려 한다. 그럴 가치나 연구의 성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唐代 景敎의 傳來와 佛敎

吳弘禪

포교사회학과 교수

이끄는 말

I. 長安의 풍경

II. 唐代의 西域 경영과 少數民族 관리

III. 大秦寺碑의 발견

IV. 大秦景敎流行中國碑頌 并序 註解

V. 景敎僧 景淨

VI. 般若 三藏과 六波羅蜜經

VII. 贊寧이 보는 異國 宗教

맺는 말

## 이끄는 말

라주는 비교철학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인류는 일찍부터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景敎의 中國 전래는 라주의 그러한 주장을 밑받침하는 文化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景敎의 영향이 과연 어떠했는지는, 있었는지 상세하지 않다.

景敎란 기독교 사제인 네스토리우스(Nestorius)의 敎說과 그 주장을 따르는 일파에 대한 中國式 명칭이다.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몰려 이집트의 오아시스 마을에서 사망하고 그 추종자들은 시리아로 피신하여 거기서 정착하고 傳道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漢武帝(BC141~88)때 霍去病(?~BC117)이 匈奴를 치기 위해 西域으로 진출한 이후 中國의 西域 경영은 中國 內部 사정에 의하여 완급은 있었지만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唐代에 이르러서는 교류가 더욱 빈번하여졌다.

천산산맥의 남쪽 기슭을 따라가는 北路와 곤륜산맥의 북쪽 기슭을 거치는 南路는 파

1) P.T. 라주. 1989년, 「비교철학이란 무엇인가」, 서광사, pp.17~20.

밀고원을 넘어 트레스옥시아나로 내려 이란고원의 북부를 서진하여 시리아의 안티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등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대륙을 횡단하는 隊商路가 개발되고, 이 길을 따라 東西의 文물 文化가 교류되었다.

景敎徒들은 650년 唐 初期에 東西 文化의 흐름을 이끌던 실크로드를 따라 中國에 들어왔으며 太宗은 이를 받아들여 정착케 하고 寺院(敎會)을 짓게 하는 등 宗教 活動을 용인하였다.

이 시기 삼국 留學僧들의 入唐 留學이 빈번하였으므로 서로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景敎 寺院과 외국 승려들이 거주하는 寺院들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왕성한 학승이었다면 기웃거리 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상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상상을 의지해서 당시에 한반도까지 기독교가 전래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그 영향이 컸을 것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최근 「景敎」<sup>2)</sup>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네스토리우스에 관한 내용은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中國 정착과정과 佛敎와의 관계 등은 잘못 서술된 부분이 너무 많다. 誤植일 수 있지만 본래 자료나 文獻 근거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술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으며 과장과 상상을 근거로 하는 주장들도 있어서 읽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염려스럽다.

佛敎의 中國 傳來史에 관해서 中國 史書에 몇 가지 루트가 記錄되어 있다. 「自治通鑑」에 따르면 後漢 明帝가 永平 八年(65) 天竺으로 求道의 使者를 보냈고, 皇族의 楚王 劉英이 佛法을 信奉했다고 記錄되어 있다. 北帝의 魏收가 쓴 魏書 「釋老志」에는 前漢 武帝 때 霍去病(B·C 140~117)이 匈奴를 討伐할 때 丈余의 金人을 얻었다고 하며 이것이 佛敎의 시초라고 記錄하고 있다. 그러나 佛像이 造成되는 것은 거의 一世紀境이나 되어서이다. 그러므로 이 금인은 匈奴人들의 祭天의 神像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같은 魏書에 武帝가 張騫을 西域으로 파견했을 때 佛敎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記錄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前漢 哀帝(B·C26~1)의 元壽 元年(B·C2)에 博士 弟子인 秦景憲이 大月氏王의 使節인 伊存으로부터 浮屠經을 口授 받았다고 記錄하고 있다. 이 기사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C 2세기는 이미 佛敎가 중앙아시아 西域 지방에 충분히 전파되어 있었고, 그때 그리스인들이 佛敎徒들의 소식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中國과 西域으로 통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더욱 경로는 忽頡를 넘는 인도를 통한 여행길보다는 이란(페르샤, 당시는 大月氏國)을 거쳐 오는 것이 쉬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李敬云은 '後漢明帝때 敎使가 두 사람 왔고(後漢의 現夢後), 이것이 中國 기독교의 시

2) 이경운, 1996, 「景敎」 도서출판 東西南北

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기독교가 성립도 되지 않은 時期므로 이 주장은 타당치 않다.

景敎라고 하는 이단으로 몰려 본거지인 콘스탄티노플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기독교의 일파가 唐朝에 中國에 들어온 사실은 여러 文獻 근거들을 통해서 볼 때 믿을 수 있다. 그러나 景敎寺院이 長安에 있었고, 신라 留學僧들도 長安에 있었다는 이유로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주장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모든 주장에는 타당한 논리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거가 정당하거나 내지는 합리적인 연구 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景敎』라는 출판물은 연구서 형식을 빌려 文獻 근거를 왜곡하고, 과장하고 그리고 그러한 文獻에 근거하는 양 위와 같은 논리를 펴는 등 연구서답지 않은 이론을 나열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景敎와 佛敎가 관계되는 사안과 당시의 佛敎에 대한 왜곡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景敎』의 잘못된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하거나 직접 비판하는 가능하면 일은 피하려 한다. 그럴 가치나 연구의 성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I. 長安의 풍경

漢의 도읍지는 長安(지금 西安)이다. 장안은 漢 이후 五胡十六國 時代와 南北朝 時代를 거치는 동안 文化 정치의 중심지였으며 西域과의 文化 交流의 中心地이기도 하였다.

漢代의 長安과 唐代의 長安은 위치가 다르다. 漢代의 長安은 渭水쪽이었다. 南北朝를 統一한 것은 隋文帝(楊堅 541~604 帝位)이다. 北周의 외척이었던 그는 北周의 皇族을 모두 주살하고 나아가 北周의 흔적을 철저히 파괴하였다. 또한 猜疑心이 대단하였다고도 전한다<sup>3)</sup>.

新都市 建設은 開皇 2年(582)에 시작되었다. 當時 納言(宰相)인 蘇威(534~621)는 “長安은 建都 以後 800년이 지나 물이 소금기를 띠게 되어 건강에 좋지 않음으로 遷都하는 것이 좋겠다”는 進言을 하고 그 말에 따른 行事였다. 旧 長安은 秦代의 村名으로 始皇帝(BC259~210)의 兄弟가 封해진 후 村에서 縣으로 승격된 곳이었다.

이후 漢의 유방(B·C256~247)에 의해 建設되어 首都가 되었고, 한에 이어 서진, 전진, 후진, 유송, 서위, 후주, 북주에 이어 수에 이르는 동안 왕조에 따라 이름이 바뀌기도

3) 隋書 卷 1, 帝紀 1, 高祖上.

하였지만 역대의 왕조가 이곳을 首都로 삼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장안으로 불렀다.

隋文帝가 新都市를 建設하고자 한 이유는 北周를 찬탈하고 그 일족을 몰살하자 인심이 흉흉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妖異가 많았다 한다. 旧 長安의 궁궐은 물론 우물까지 철저히 파괴한 사실에서 수문제의 두려움이 엿보인다.

新 長安은 旧 長安 東南의 龍首原지역이었다. 新都市 建設의 총제는 名目上 宰相 蘇威였지만 실질적 지휘는 부감인 宇文愷가 하였다.<sup>4)</sup>

新都市를 大興城이라 하였고, 그 규모는 南北이 8.6km, 東西가 9.7km, 周圍 36.7km 면적은 84km<sup>2</sup>이다. 그 지역은 六坡라는 이름처럼 구능이 많아 굴곡이 심한게 특징이었다. 宇文愷의 도시 설계는 언덕 높은 곳은 궁궐 및 관청, 寺院 등을 세우고 낮은 곳에는 주거, 일반인들의 주거, 시장을 두는 것이었다.<sup>5)</sup>

宇文愷는 煬帝의 大業元年(605) 洛陽 建設에도 工部尙書로 등용되며 高句麗 침공시 중군하여 遼水에 浮橋를 놓아 渡河作戰을 성공시키기도 한다. 그를 도와 二日만에 다리를 완성시킨 少府監 何周도 뒷날 工部尙書로 등용되는데, 하주 역시 西域 何國 출신이다. 이처럼 西域인들이 일찍부터 문화, 토목, 군사 각 방면에 활약하는 이들이 많았다.

西域이란 막연한 호칭으로 中央아시아 둔황부터 파밀고원 북쪽까지를 의미한다. 昭武九姓이라고 하는 康·安·曹·石·米·何·火壽·戊地·史(文獻에 따라 약간 다름) 등이 그것이다. 康은 사마르칸트이며 그 가까운 곳이 시클湖 東北지역이 何國이었다고 전한다. 長安 薦佛寺에서 경룡 4년(710)에 입적한 僧伽 大師가 곧 이곳 출신이었다.<sup>6)</sup>

煬帝가 江都(揚州)에서 家臣에게 살해당하고 大興城에 있던 煬帝의 孫인 楊侑가 李淵(565~635)에게 帝位를 禪讓하였다. 唐의 建國이다. 李淵이 곧 唐의 高祖이다.

唐初에는 京城이라 부르다가 天寶 元年(742)에 西京, 至德 2년(757) 中京, 上元 2년(761)에 다시 西京, 上元 3년(762)에 上都로 바뀌며 長安이란 호칭은 정식으로는 쓰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唐의 首都 전체를 長安이라 부르고 있다<sup>7)</sup>.

長安은 皇城을 중심으로 朱雀路가 南北으로 뻗어있고, 이를 중심으로 東西 兩街로 나누고, 左街(東) 55坊, 右 55坊으로 나뉘는데, 左街는 주택구역이며 右街에는 酒樓, 상점, 민가들이었다 한다. 百十坊으로 나누었다. 坊의 路폭이 50간이었다 하니 대단히 넓었을 것이다. 城 동쪽벽의 春明門 근처는 관청과 공신들의 저택이 있었으며, 西域 이주자들은

4) 宇文愷 隋書 卷68, 列傳 33, 北周 皇室인 宇文氏와는 관계 없고 西域 胡人의 家系라 한다. 西域出身 宇文忻의 동생

5) 隋書 卷1, 高祖上, 開皇 2년, 隋書 卷68, 列傳 33, 西域의 洪령 北쪽에 있는 何口 出身이다.

6) 송고승전 권18. 大正藏 50. p.822상 「釋僧伽者 葱嶺北河國人也 自言俗姓河氏」

7) 全唐詩에 수록된 시들 중 長安을 배경으로 노래한 시들은 대개 長安으로 부르고 있다.

주로 城 서쪽벽의 金光門, 門遠門을 중심으로 모여 살도록 하였다<sup>8)</sup>.

日本の 入唐 求法僧인 空海(774~835)는 804 留學僧으로 入唐하여 宣陽坊의 鴻臚寺에 잠시 머물렀다. 鴻臚寺는 외국인을 관장하는 관청이며 숙소였다. 空海는 留學僧으로 西明寺에 거주하였다. 그의 견문에 의하면 약 10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며, 大食口(아라비아)人이나 胡人(페르시아)들을 위해서는 침대가 준비되어 있으며, 新羅, 日本人들을 위해서는 바닥에 앉고 눕도록, 각각의 나라 민족의 생활 습관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다고 전하고 있다<sup>9)</sup>.

長安에는 일시 다녀가는 외국인들도 많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는 교양 높은 文化人들도 배출되었다. 대자은사의 대탑에 벽화를 그린 尉遲乙은 西域風 그림의 신인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貞觀 三年(629)의 戶部 조사에 의하면 돌궐(터키족) 등 四夷의 백성이 120여만 명이라고 記錄하고 있다. 이는 唐과 그 이전 中國의 中華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이 순종하는 少數民族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전통이 있었고, 특히 唐의 경우는 異國의 文化에 대하여 대단히 호의적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0)</sup> 또한 李淵의 출신과도 관계가 깊을 것이다. 능력있는 이는 등용하고 그들의 언어, 문화, 종교를 인정하며, 생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당 정권의 기본적인 정책 때문에 나라를 잃은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다.

景教의 전래 수용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李白(701~762)의 詩 「少年行」은 당시 長安 젊은이들의 한 풍속을 연상시킨다.

五陵<sup>11)</sup>의 소년 金市의 東  
銀鞍白馬 春風을 가른다.  
落花 밝아 다하고 어디에서 놀거나  
웃으면서 들어가는 胡姬의 酒사안.

金市는 長安의 西市로 西域人들이 모여 사는 번화가이며, 胡姬란 페르시아계의 여인들을 말한다. 당시 장안 외국인들의 격의 없이 지내는 풍속의 한 면을 연상시킨다.

8) 석전건지조 박사가 구당서, 신당서, 전당문 전당시에 나타나는 지명寺院들의 편린들을 수집하여 長安시를 재현하였다.

9) 日本後記 空海傳 참고. 西明寺는 右?坊의 西南角에 건립되었으며, 大唐 제일의 巨刹이었다. 高宗이 귀국하자 그가 주석하고, 번역도량으로 高宗이 창건하도록 하였다.

10) 宮寄市定 아세아史概說 155項以下 學生社. 1973년.

11) 오릉은 곧 長安을 말하는 것

## II. 唐代의 西域 경영과 少數民族 관리

中國人의 西域에 대한 지식과 경영은 漢代에 들어와서 시작됐다고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春秋時代에 이루어진 『山海經』이나 지리서인 『禹貢』에 西域의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西域을 원정했다는 「周穆天子傳」<sup>12)</sup>도 성립은 春秋時代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본격적인 경영은 漢代에 이르러서였다. 漢의 高祖가 冒頓單于와 平城(大同) 부근 白登 臺에서 싸워 크게 패한 후 화친정책으로 대하였다. 많은 공물과 皇族의 公主를 單于와 결혼시키는 등 굴욕적인 외교였다.

武帝는 '夷로 夷를 制하는 政策'으로 匈奴의 서북쪽에 있는 月氏<sup>13)</sup>와 동맹하여 匈奴를 치고자 張騫을 月氏로 파견하였다. 그가 귀국한 것은 B·C 126년으로 13년에 걸친 여행이었다. 月氏와 동맹은 안 되었지만 그의 건문에 의하여 武帝의 西域경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B·C 121년 하서로부터 匈奴 세력을 일소한 武帝는 西域 경영에 힘을 기울였다. 장건이 재차 종자 300人を 데리고 西域으로 진출하였다. 그는 烏孫(匈奴 서쪽 세력가)을 漢의 지배에 복속시키고 그의 부사들을 大宛(회르가나) 강거, 大月氏 大夏(박트리아), 安息(파르티아=페르샤), 身毒(신두=인도), 우진(호탄) 등지로 보내 西域제국과 공식 통로가 열리고 이를 계기로 많은 西域인들이 中國을 드나들고 혹은 정착하였다.

이들의 이세, 삼세들은 中國 文化에 젖으면서 많은 譯經僧을 배출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용병으로 종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後漢 이후 군사는 거의 유목민 용병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높은 지식과 교양을 익히고 무력을 지닌 이들이 한때 중원을 석권하여 이른바 오호십육국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지고 논의된 사실들이다. 이들 군벌 중 하나가 北周를 세운 宇文泰이며, 北周를 일으킨 武帝는 천하통일을 꿈꾸는 야심가로서 宗教 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宇文泰는 武川鎮출신이다. 武川鎮은 장성의 서쪽부분으로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전진기지로 선비족 中國人의 호족 중의 무인, 柔然의 귀순자들을 정착시켰다. 이들은 서로 통혼하여 혈통이 융합되기도 하였다. 당을 세운 李淵의 母가 돌궐 여성인 사실은

12) 진함령 5년(275) 사민들이 전국 말기 위왕의 묘를 도굴하다가 수천 매에 이르는 竹簡을 발견했는데 그 후 竹簡의 대부분은 없어지고 남은 것 중에 이것이 있었다 전한다. 周五代 穆王(B·C 8세기)의 犬戎를 복속시킨 사실로 보는 설과, 秦을 일으킨 목공이 서역의 覇者가 되었다는 전설이 周王으로 轉化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13) 月氏는 匈奴에 쫓겨나 서쪽으로 근거를 옮겼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이다.<sup>14)</sup>

이러한 새로운 군벌이 곳곳에 있었으며 북위가 洛陽으로 천도하면서 武川鎮이 버려지자, 宇文泰는 이곳을 근거로 힘을 기르고 이윽고는 長安에 근거하여 北周를 세웠다. 武帝(宇文泰)는 나라를 세우고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자 개국의 원훈으로 八柱國, 十二대장군의 가문을 세웠다. 柱國은 무인의 최고위이다.

팔주국 중 한 사람이 李虎로써 당을 세운 李淵의 조부이다. 한편 십이 장군 중의 하나가 수를 세운 양씨이다. 같은 팔주국 중에 또 하나의 이씨가 있다. 이필의 증손 李密이며, 그가 제이차 高句麗 침공시 반란을 일으켜 침공 자체를 좌절시키기도 하였지만, 수를 멸망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唐 太宗(이세민 597~649)은 불세출의 명군으로 불린다. 국내가 안정되자 西域 경영에 힘을 기울인다. 당시 북방은 몽골지방에 세력을 가지고 있던 유연을 넘어 트린 돌궐(터어키족)이 지배하고 있었다. 돌궐은 6세기경 알타이 산맥 부근에서 일어나 몽고 중앙아시아에 대제국을 建設하는 등 터어키계 유목민으로 봉건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隋代에 이르러 돌궐은 東西로 나뉘어 東돌궐은 만주의 글안·실위 등의 부족을 지배하고 西돌궐은 중앙아시아 제국을 장중에 넣고 사산조의 페르시아까지 침공하여 조공도 록 하였다. 隋末의 대란에 힘입어 돌궐이 강성해지자 화북에 할거하던 群雄은 돌궐을 군주로 모시고 그의 무력원조를 요청하였다. 당나라도 태원에서 일어나 긴 여정 끝에 長安에 들어오면서 돌궐 騎兵의 힘을 빌리고 있다.

太宗은 동돌궐과 굴욕적인 외교를 하다가, 西돌궐과 연합하여 東돌궐을 제압하고, 파밀고원 동부까지의 西或一代를 지배하에 넣었다.太宗은 구자 우진 언기 소록 등 西域의 요충지에 도독부를 두었다. 이것이 안서 四鎮으로 안서도호부를 구자에 두고 四鎮을 감독도록 하였다. 이때 당의 영향력은 페르시아(대하, 박트리아)까지 미쳤다.

玄宗 천보 육년(747) 안서부도호인 高仙芝로 하여금 소늉를 치도록 하고 삼년 뒤는 석국(다슈켄트)을 쳐 왕을 포로로 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카슈가르, 카슈켄트 등 파밀고원 여러 국가들도 당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고, 당의 이름이 서쪽의 여러 나라에 전하여졌다. 이는 西域제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西域인들이 長安을 비롯한 각 지역에 정착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정관 삼년(629) 호부 조사의 보고에 따르면 돌궐 등 四夷의 백성이 120만이라 하고 있다.

四夷를 통제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외교 관계를 관장하는 곳은 鴻臚館(寺)이지만 정착 주민을 관장하는 관리는 각각의 민족 중에서 뽑아 임명하였다. 長安에는 祇教(조로아스타)徒의 숫자가 많았다 한다. 페르시아인들과 현교도를 관장하는 관청을 薩寶라

14) 구당서 51. 열전1. 高祖태목황후두씨. 두씨는 주무제후와 자매간이다.



하였고, 관청 역시 서호의 거류지에 있었다.

위글인의 摩尼敎에는 大愛光明寺라는 寺額을 내렸고, 위글인들은 摩尼敎 寺院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寺院群을 통괄하는 司敎와 寺院을 주관하는 장노, 신도(일반인)를 직접 직도하는 청사로 관리 체계가 세워졌다. 관리로 祚正을 두었다.<sup>15)</sup>

摩尼敎는 페르시아(이란) 국교인 조로아스타교로 부터 탄압을 받아 금교령이 내려지자 이란에서 쫓겨나 변방의 위글인에게 받아들여졌다. 中國에 온 위글인들은 결국 달리 갈 곳이 없었으며 會昌年間의 宗敎 탄압에 반란을 획책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高宗 時 景敎 傳道團의 長老 何羅本에게 鎮護大法主라는 호를 내렸다. 이 역시 景敎의 대표 총괄자라는 의미부여인 것이다.<sup>16)</sup>

中國의 통상적인 통치술은 복종을 하는 한 약간의 자유를 베푸는 관용의 모습을 취한다. 동시에 以夷制夷의 사상이 바닥에 깔려있다. 少數民族의 宗敎政策은 鄉法에 따르도록 하였다.<sup>17)</sup>

### III. 大秦寺碑의 발견

大秦景敎流行中國碑(以下 碑로 칭함)는 明天啓 5年(1625) 이미 田園이 되어버린 長安의 토지에서 밭을 갈던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하였다. 당시 中國에 와 있던 耶蘇會(예수회) 선교사들이 이를 유럽에 전하자 오히려 선교사들의 작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佛敎學者인 高楠順次良(다카구스)이 『貞元新定釋敎目錄』을 읽다가 ‘大秦寺의 僧景淨’이라는 碑文의 撰者 이름을 발견하고 파리의 東洋學專門誌에 발표함으로써 碑의 진위가 가려지게 되었다. 이어 1916년 桑原鷲藏(구와바라)이 碑文에 記錄되어 있는 景敎僧 及烈이란 이름을 『冊府元龜 卷546』를 검색하다가 발견하고 及의 古音이 Gap, 烈이 liet이므로 及烈의 胡音은 Gabriel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sup>18)</sup> 그러나 碑文 후기 부분에 시리아어의 가브리엘을 ‘業利’로 표기한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뒤에 상술 함)

大秦은 中國 史書에 등장하는 西域 국가로 시대에 따라 약간씩 표기가 다르다. 大秦이

15) 通典 卷40. 직관

승사략 卷3. 大正藏 第55.

16) 碑文. 사략3. 상동 p.55.

17) 通典 卷40.

18) Nestorius敎 僧 及烈에 관한 일사 大正 四年(1920) 11월 「禮文」

란 큰(大) 中國(秦)이란 뜻으로 中國에 필적하는 나라라는 의미이다.

漢魏時代에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의 로마 帝國領을 가리키고, 宋代에는 이란의 바그다드를 말하기도 하였다. 碑文에서는 당시 景敎의 본거지인 시리아를 포함하는 페르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景敎를 초기에 파사교라고 불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景敎라는 宗教 명칭은 中國에서는 특이하다. 碑文에 ‘強稱景敎’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간혹 ‘經字’로 쓴 경우도 있다.<sup>19)</sup> 中國에서는 異國으로부터 전래된 宗教는 교조명, 신앙의식 형태, 信仰하는 민족名 등으로 이름짓는데 景敎의 경우는 景이라는 추상적인 의미의 文字가 쓰이고 있다.

‘景字’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일반적인 것이 그리스도 혹은 神의 德을 찬탄하는 ‘빛나는’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景을 寫字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中國의 異國 宗教 文獻을 번역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경향이다. 佛子나 僧字가 그 좋은 예이다.

中世 페르샤어 혹은 중세 네스토리안과 조로아스타 사제의 논쟁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ke’s(가르침)라는 말이 보인다고 한다. ke’s의 ke의 對音으로 景이 쓰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sup>20)</sup> 필자도 神(카미)의 조심스런 주장에 동의하고 싶다. 對音이기 때문에 때로는 經字도 썼던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流行이란 盛行의 의미가 아니라 흐름, 전하여짐의 뜻으로 景敎의 傳道經過를 말하는 것이다.

碑文의 해석은 佐伯好郎(사이끼)의 研究, 神(카마)眞道の 註釋, 基督教大辭典에 수록된 中村正眞(나카무라)의 訓點을 참고로 하였다.

碑文의 構成은 本文과 頌(後記 部分), 그리고 페르시아어(시리아어)名과 漢名을 併記한 副署 部分으로 되어있으며, 本文은 二部으로 이루어졌다. 제1부는 창세기부터 彌施訶(메시아)의 탄생 승천까지이고, 제2부는 唐王朝와의 관계, 傳道 과정, 佛敎와의 관계 등을 기술하고 있다.

頌은 찬탄하고 기리는 노래이다. 내용은 거의 唐王朝에 관한 것이다. 碑文의 右上에 頌併序라고 頌을 主体로 하고 있음을 볼 때 本 碑는 唐王朝의 禮贊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碑의 전면 상단에 ‘大秦景敎流行中國碑頌’이라 크게 쓰고 한 자 띄어서 並序라고 쓰여 있다. 제목대로 본다면 景敎가 中國에 유행(전래수용)된 것을 송(찬탄)하고, 서(산문부분)는 그 과정을 서술한 것으로 보고 싶다.

19) 僧史略 卷3.

20) 神道學「大秦景敎流行中國碑」東西交涉 第2卷 1號 井草出版 1983.

序의 부분은 景敎의 교리 전래 과정과 이를 수용한 唐王朝의 功德을 찬탄하고 景敎를 선양한 白衣의 景敎僧 伊斯의 공적을 서술하고 있다. 그 공덕을 기려 碑를 세운다고 끝맺음이 되어 있다<sup>21)</sup>.

碑의 중심인 頌의 부분인 詞에서는 거의 唐王朝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을 뿐이다. 기독교에 관한 사항은 신과 메시아의 오심과 三位一體의 교법을 편다는 표현 뿐 景敎의 神館·敎義 혹은 中國에서의 공적 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文章은 唐宋 時代에 絶句, 律과 함께 유행했던 詞의 体制를 따르고 있다.<sup>22)</sup> 作詩法的으로는 色다른 형식인 듯 하다. 즉, 四言短句 둘을 모아 한 句를 이루고 四句로 한 절을 이루고 있다. 다만 終末 四句만이 七言으로 되어있다.

押音은 格에 맞는 듯하다. 先音(然天辺玄), 陽音(王張唐航康), 노音(宇土主苦), 敬音(正敬映慶), 禱音(駕夜謝夏), 眞音(地利施萃), 職音(德城·色則), 質音(密·一·吉)등이고, 平韻이다. 平音은 밝고 활달한 분위기라 한다.<sup>23)</sup>

#### IV. 大秦景敎流行中國碑頌 并序 註解

##### 1) 原文

##### 大秦景敎流行中國碑頌 并序

大秦寺僧景淨述

粵若常然眞寂 先先而無元 窅然靈虛 後後而妙有 總玄樞而造化 妙衆聖以元尊者 其惟我一妙身 無元眞主 阿羅訶歟 判十字以定四方 鼓元風而生二氣 暗空易而天地開 日月運而晝夜作 匠成萬物 然立初人 別賜良和令鎮化海 渾元之性 虛而不盈 素蕩之心 本無希嗜 泊乎沙磧 施妄 鉤飾純精 問平大於此是之中 鄭冥同於彼非之內 是以三百六十五種 肩隨結轍 競織法羅 或指物以托宗 或空有以淪二 或禱祀以邀福 或伐善以驕人 智慮營營 思情役役 茫然無得 煎迫轉燒 積昧亡途 久迷休復 於是我三一分身 景尊彌施訶 戢隱眞威 同人出代 神天宣慶 室女

21) 李敬云, 「景敎」 105 以下에서 伊斯의 묘비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산문의 끝 부분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伊斯 一人만을 찬탄하는 것으로 볼 수만도 없고 詞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

22) 許世旭, 1986 初版 451 以下, 中國古典文學史, 법문사.

23) 御定奎章全韻 참고, 海城社, 1993년

誕聖於大秦 景宿告祥 波斯賭耀以來貢 圓二十四聖有說之舊法 理家國於大猷 說三一淨風無言之新教 陶良用於正信 制八境之度 鍊塵成眞 啓三常之門 開生滅死 懸景日以破暗府 魔妄於是悉摧 棹慈航以登明宮 含靈於是乎既濟 能事斯畢 亭午昇眞 經留二十七部 張元化以發靈關 法浴水風 滌浮華而結虛白 印持十字 融四照以合無拘 擊木震仁惠之音 東禮趨生榮之路 存鬚所以有外行 削頂所以無內情 不蓄臧獲 均貴賤於人 不聚貨財 亦罄遺於我 齋以伏識而成戒以靜愼爲固 七時禮讚 大庇存亡 七日一薦 洗心反素 眞常之道 妙而難名 功用照彰 強稱景教 惟道非聖不宏 聖非道不大 道聖符契 天下文明 太宗文皇帝 光華啓運 明聖臨人 大秦國有上德曰阿羅本 占青雲而載眞經 望風律以馳艱險 貞觀九祀 至於長安 帝使宰臣房公元齡 摠仗西郊 賓迎入內 翻經書殿 問道禁闈 深知正眞 特令傳授 貞觀十有二年 秋七月 詔曰 道無常名 聖無常體 隨方設教 密濟群生 大秦國大德阿羅本 遠將經像 來獻上京 詳其教旨 元妙無爲 觀其元宗 生成立要 辭無繁說 理有忘筌 濟物利人 宜行天下 所司卽於京義寧坊 造大秦寺一所 度僧二十一人 宗周德喪 青鸞西昇 巨唐道光 景風東扇 旋令有司將帝寫眞 轉模寺壁 天姿汎彩 英朗景門 聖蹟騰祥 永耀法界 按西域圖記 及漢魏史策 大秦國南統 珊瑚之海 北極衆寶之山 西望仙境花林 東接長風弱水 其土 出火浣布 返魂香 明月珠 夜光璧 俗無寇盜 人有樂康 法非景不行 主非德不立 土宇廣闊 文物昌明 高宗大帝 克恭纘祖 潤色眞宗 而於諸州 各置景寺 仍崇阿羅本 爲鎮國大法主 法流十道 國富元休 寺滿百城 家殷景福 聖歷年 釋子用壯 騰口於東風 先天末 下士大笑 訕謗於西鑄 有若僧首羅含 大德及烈 竝方貴緒 物外高僧 共振元綱 俱維絕紐 玄宗至道皇帝 令寧國等五王 親臨福宇 建立壇場 法棟暫橈而更崇 道石時傾而復正 天寶初 令大將軍高力士 送五聖寫眞 寺內安置 賜絹百匹 奉慶齋圖 龍髯雖遠 弓劍可攀 日角舒光 天顏咫尺 三載 大秦國有僧佶和 膽星向化 望日朝尊 詔僧羅含普論等十七人 與大德佶和於興慶宮修功德 於是天題寺榜 額載龍書 寶裝璀璨 灼爍丹霞 睿札宏空 騰凌激日 寵賚比南山峻極 沛澤與東海齊深 道無不可 所可名 聖無不作 所作可述 肅宗文明皇帝 於靈武等五郡 重立景寺 元善資而福祚開 大慶臨而皇業建 代宗文武皇帝 恢張聖運 從事無爲 每於降誕之辰 錫天香以告成功 頒御饌以光景衆 且乾以美利 故能廣生 聖以體元 故能亨毒 我建中聖神文武皇帝 披八政以黜陟幽明 闡九疇 以維新景命 化通玄理 祝無愧心 至於方大而虛 靜專而怨 廣慈救衆苦 善貸被羣生者 我修行之大猷 汲引之階漸也 若使風雨時 天下靜 人能理 物能清 存能昌 歿能樂 念生響應 情發自誠者 我景力能事之功用也 大施主金紫光祿大夫 同朔方節度副使 試殿中監 賜紫袈裟僧伊斯 和而好惠 聞道勤行 遠自王舍之城 聿來中夏 術高三代 藝博十全 始効節於丹廷 乃策名於王帳 中書令汾陽郡王 郭公子儀 初櫛戎於朔方也 肅宗俾之從邁 雖見親於大內 不自異於行間 爲公爪牙 作君耳目 能散祿賜 不積於家 獻臨思之顏黎 布辭憩之金闕 或仍其舊寺 或重廣法堂 崇飾廊宇如翬斯飛 更効景門 依仁施利 每歲集四寺僧徒虔事精供 備諸五旬 餒者來而飯之 寒者來而衣之 病者療而起之 死者葬而安之 清

節達婆 未聞斯美 白衣景士 今見其人 願刻洪碑 以揚休烈 詞曰 眞主無元 湛寂常然 權與匠  
化 起地立天 分身出代 救度無邊 日昇暗滅 咸證眞元 赫赫文皇 道貫前王 乘時撥亂 乾廓坤  
張 明明景教 言歸我唐 繡經建寺 存歿舟航 百福皆作 萬邦之康 高宗鑽祖 更築精宇 和宮廠  
朗 徧滿中土 眞道宣明 式封法主 人有樂康 物無災苦 玄宗啓聖 克修眞正 御榜揚輝 天書蔚  
暎 皇圖璀璨 率土高敬 庶績咸熙 人賴其慶 肅宗來復 天威引駕 聖日舒晶 祥風掃夜 祚歸皇  
室 被氛永謝 止沸定塵 造我區夏 代宗孝義 德合天地 開貸生成 物資美利 香以報功 仁以作  
施 暘谷來威 月窟畢萃 建中統極 聿修明德 武肅四溟 文清萬域 燭照人隱 鏡觀物色 六合昭  
蘇 百蠻取則 道惟廣兮應惟密 強名言兮演三一 主能作兮臣能述 建豐碑兮頌元吉

大唐建中二年 歲在作噩 太歲月七日大耀森文日建立  
時法主僧寧怒知東方之景衆也  
朝議朗前行台州司士 參軍呂秀巖書

2) 註解

大秦景教流行中國碑頌 并序

大秦寺<sup>24)</sup>僧景淨<sup>25)</sup>述

24) 대진은 로마제국이나 혹은 페르시아를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시리아를 포함한 페르시아를 가르키고 있다. 景教가 중국에 오자 페르시아에서 온 宗教라고 하여 파사사라고 하였다. 전당문 권32에 唐 元宗의 소가 실려있다. 「改波斯寺 爲 大秦寺소」가 그것이다.

「波斯經教 出自大秦 傳習以來 久行中國 爰初建寺 因以爲名 將欲示人 必修其本 其兩京波斯寺 宜改爲大秦寺 天下諸府郡者 亦宜準此」

25) 景淨에 대해서는 페르시아인이라는 주장과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심지어는 이스가 그의 아버지이고, 이스는 인도 출신의 승려로 중국에 와서 景教로 개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스가 王舍城에서 왔다는 碑文의 기사에서 그러한 추리를 하고 있는 듯 하다. 왕사성은 인도 마갈다의 수도로 유명하지만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연장선에 소왕사성이 있음을 현장이 그의 서역기에 기록하고 있다. 景淨은 페르시아어에 능통하였다. 소왕사성 출신으로 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碑文의 併記 部分에 시리아語로 景淨의 직책이 있다. 그 번역에 따르면 司祭 兼 地方主教 兼 旃旦의 司父라 하였다. 직책이 사제와 地方主教를 겸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특수한 사정인지는 상세치 않다. 겸임 직책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

神直道, 「大秦景教流行中國碑について」, 季刊 『東西交渉』 第二卷 第一號, 井草出版, 1983.

粵若(여기) 常然眞寂하여 先의 先 그러나 처음(元) 없고, 窅然(멀고 깊이)하게 靈虛하며, 後의 後 그러나 妙(力)가 있다. 玄樞(사물의 근본)를 다스려 그리하여 造化(창조의 뜻)를 이루고, 衆聖에 妙로써 元尊이신 분, 그것은 다만 우리들의 三(位)一(體)의 妙身이며, 無元의 眞主이신 阿羅訶(아라하)<sup>26</sup>인저, 十字를 判하여서 四方을 정하고, 元風을 올려 그리하여 二氣를 낳게 하며 暗空이 변하여 天地가 열리고, 日月이 運行하여 晝夜가 이루어졌다.

萬物을 匠成하고 그리하여 初人(아담)을 세워 別로 良和(부인)를 베푸시여 化海(轉變하는 세계)를 恒상(鎮)토록 하시었다. 渾元의 性(자연의 기, 정신·마음)이 비어(虛) 있으며 넘치지 않고(不盈) 素蕩의 心(깨끗한 마음) 본래(本) 希嗜(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며 하는 마음, 다른 신을 섬기려는 생각)가 없었다. 탁해졌구나(泊乎). 沙殫(사탄 satan)이 미망(妄)을 배플고자 하여 純精(깨끗한 마음)을 鈿飾하고, 人間(間)하여 於此是之中(신과 인간 사이)이 平大(같고 크다)하다고 하여, 冥同(어둠의 벗)토록 하여 彼の 그릇된 것 안에서 다투게(隙) 하니 이로써 三百六十五種(많은 사람)이 肩隨<sup>27</sup>하여 轍을 맺고(結轍<sup>28</sup>) 다투어(競) 法羅를 짜고(織; 宗教의 그물을 짠), 或은 物을 가리켜 그것으로 宗으로 의탁하고, 或은 空과 有의 둘에 잠기어(淪), 或은 禱祀로써 福을 맞으려 하기도 하고, 或은 伐善<sup>29</sup>으로 사람을 바로 잡으려(矯) 한다. 智慮는 營營(부지런히 하는 모양)하고 思情은 役役<sup>30</sup>이나 茫然하여 얻는 것 없으며(無得), 煎迫(급박함) 轉燒(타서 무너지다)하니 어두움(昧)을 쌓고(積) 길을(途) 잃었으며 오래도록(久) 休復(본래의 곳으로 돌아감)에 해맨다. 여기에(於是) 우리(我) 三一分身이시며 빛나고 거룩하신(景尊)彌施訶(메시아) 眞威를 戢隱(참모습을 감춤)하시고 사람들과 같이(同人) 代<sup>31</sup>에 나투셨다(사람 몸을 빌려 세상에 나타나심). 神天(천사)가 기쁨(慶)을 전하고, 室女(妻) 聖을 저 大秦<sup>32</sup>에서 낳으셨다. 景宿(빛나는 별)祥을 고하고, 波斯[사람이] 빛나는 것을 보고 와서 예물을 바쳤다(來貢). 二十

26) 阿羅訶: 시리아文이며 히브리語는 Elohim이라 한다. 『舊約』 중의 神을 말한다. 이경운은 5C경 묘법연화경에 사용되었다고 하나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불분명하다. 이경운 『景教』, 동서남북, 1996. p.23.

27) 肩隨: 《禮記》 ‘五年以長 則肩隨之’

① 연장자에 대한 禮로 어깨를 나란히 하되 조금 뒤쳐져서 걷는 일.

② 뒤따르는 일. 동행하는 일의 뜻.

28) 結轍: 수레바퀴가 교착한다. 왕래가 빈번하다는 뜻. 《前漢書》 <문제기>. 《史記》 <一於道>.

29) 자기의 善行을 뽐냄. 《論語》 ‘願無伐善 無施勞’

30) 役役: 心力을 기울이는 모양. 《莊子》 ‘終身一而 不見其成功’

31) 당 태종의 이름이 世民이다. 避諱하여 代로 바꾸었다.

32)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四<sup>33</sup>)聖有說의 舊法을 원만케 하고(구약성서를 성취한다는 뜻), 家國을 大猷(신의 재량)롭게 다스리고, 三一의 淨風(성령) 無言(말을 다할 수 없는)의 新敎를 설하시어, 善良한 이들을 길러(陶) 正信을 쓰도록 하셨다. 八境<sup>34</sup>)의 法度를 制定하시고 塵을 다루어서 眞을 이루었다(더럽게 된 것을 깨끗이 하여 참되게 함). 三常<sup>35</sup>)의 門을 열어 삶을 열고 죽음을 멸하였다(開生滅死). 景日(빛나는 해)을 걸어 暗府를 부수니, 魔妄 여기에서 모두 부수어 졌다(悉摧). 慈航을 노저어 明宮에 오르니 舍靈(사람들) 여기에서 이미 구함되었다. 能事(잘하는 일, 훌륭한 일)를 모두 마치시고(斯畢) 亭午(正午) 眞에 이르렀다. 經(신약성서) 二十七部<sup>36</sup>)를 두어서 元化를 펴 그로써 靈關을 發하도록 하였다<sup>37</sup>). 法浴(洗禮)의 水風(물과 靈)은 浮華에 물 뿌려 깨끗하게 하였다(虛白). 印으로 十字를 가지고 四照를 부드럽게(融) 하니 無拘에 맞도록 하였다<sup>38</sup>). 나무를 쳐(擊木; 신호로 목관을 칩) 仁惠의音を 울리고(震), 東禮<sup>39</sup>)하여 生榮(삶과 영광)의 路(路)로 나아가게(趨) 하였다.

神女들이 鬚을 두는 所以는 外行을 남김이며, 정수리(頂)를 깎는 所以는 안으로 情을 두지 않음이라. 臧獲(노예)을 모으지 않으며, 貴賤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히 하며(인간 평등), 貨財를 모으지 않는 것은 자신(我)에게 남김없음을 보이는 것이다(罄遺). 齋(몸을 깨끗이 함)는 伏識(沈思)로써 이루며, 戒는 靜愼으로써 견고히 한다. 七時(하루 일곱번)의 禮讚은 크게 存亡(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을 도와 감싸고 七日의 一薦(한 번의 供物)은 心을 씻어 素(청정)로 돌리니, 眞常의 道는 妙하여 이름 붙이기 어렵고 功用은 照彰하고 強稱하여 景敎라 한다. 오직 道는 聖이 아니면 널리 퍼지지 않으며 聖은 道가 아니면 커지지 않는다. 道와 聖은 符契여서 天下의 文明이다.<sup>40</sup>)

- 33) 『舊約』의 豫言者를 말하고 있으나 '24'라는 수자는 무의미하다고 한다.(前揭書 22) 『新約』의 「요한복음」에 '24인의 장로'라는 말이 있으나 이는 『舊約』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 34) 八境 : 『마태복음』 5장 1절~10절에 나오는 八福을 의미한다.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등의 여덟 경우이다.
- 35) 三常 :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리스도敎의 중요한 三德인 믿음·소망·사랑을 말한다.
- 36) 『新約聖書』 27卷을 말한다.
- 37) 신의 뜻을 전하고 신앙의 관문을 열었다는 뜻인 듯 하다.
- 38) 세계를 융화하는데 제한이 없음을 뜻함.
- 39) 그리스도敎에서는 東方을 향하여 예배하는 전통이 있다 한다. 따라서 敎회는 東쪽으로 聖所가 있으며 西쪽에 入口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 40) 周易, 上經, 乾. 龍德이 나타나면 天下가 文明의 敎化를 입는다.

太宗 文皇帝(627~649), 光華하여 運 열고 明聖함으로써 사람을 맞이한다. 大秦國에 上德이 있어서 阿羅本이라 한다. 靑雲<sup>41)</sup>의 예견(占)에 따라 眞經을 가지고 風律을 바라고 (望) 艱險을 달려, 貞觀九祀(635) 長安에 이르렀다.

帝는 宰臣 房公元齡<sup>42)</sup>으로 하여금(장안)의 西郊에 杖(의장병)을 거느리고, 賓으로 안에 들게 하였다<sup>43)</sup>(빈객으로 궁정에 맞아들임). 經을 書殿에서 번역하고, 道를 禁闕(궁중 안)에서 물었다. 深이 正眞임을 알고 特히 傳授토록 하였다.

貞觀 十有二年(638) 秋七月 詔하여 말하길 ‘道에는 常名<sup>44)</sup> 없으며, 聖에는 常體가 없다. 隨方에 따라(지방의 실정에 따라) 가르침(敎)을 배풀고 密히 群生을 구원토록 하라.’ 大秦國의 大德 阿羅本<sup>45)</sup>이 멀리 經像을 가지고, 來하여 京에 獻上하였다. 其 敎旨를 자세히 하니, 玄妙는 無爲하다. 其 元宗을 보니 生成은 要를 세웠고 詞에 繁說<sup>46)</sup>함이 없고 理는 筌(유인하는 속임수) 없이 함이 있고, 物을 성(濟)하게 하고 人을 이롭게 한다. 宜(宜) 天下에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所司(관리) 곧 京의 義寧坊<sup>47)</sup>에 大秦寺<sup>48)</sup> 一所를 짓고 僧 二十一人을 득도하도록 하였다.

宗周의 德이 喪하자 靑駕<sup>49)</sup>는 西에 오르고(昇) 巨唐의 道 빛나니(光) 景風이 東에서

41) 老子가 후주의 국정이 어지러워지자 주를 떠난 고사를 말함. 이것이 『老子化胡經』에 인용되어 노자가 인도의 분자로 태어나 교화했다, 그리고 국운이 왕성해지자 다시 중국으로 돌아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景淨은 은근히 景敎에 빗대고 있다. 나라가 부흥하면 어진 이가 모이고 나라가 쇠하면 어진 이가 떠난다는 뜻으로 쓰인다.

42) 舊唐：卷66, 列傳 16.

新唐：卷96, 列傳 21.

43) 外國 使臣에 대한 일반적인 의례이다. 玄奘의 歸國時는 九樂을 연주하고 맞이하였다고 한다. 九部樂이란 西涼, 天竺, 高麗, 龜茲, 安國, 疏勒, 康國, 燕, 清의 음악을 말한다. 皇帝를 중심으로 문무백관이 모인 연회에서 연주되었다. 최고의 영접인 것이다.

44) 《道德經》 第32章. ‘道常無名’의 글귀 가운데 두 글자를 전도하여 썼다.

45) 『天道遡源』의 註에는 Olopun. 中村正直는 오로판, 佐伯好郎는 아로펜 혹은 아브라함이라 하나 일정하지 않다.

46) 《道德經》 <外物篇>. 낚시줄에 매여 있는 참대 조각.

47) 義寧坊. 지도 참조. 西域人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 宋 敏求 《長安誌》 卷10. “의녕방 북쪽에 파사군사가 있다”라고 記述하고 있다.

48) 이때는 대진사가 아니었다. 전래된 지명을 따라 파사사라고 하였던 듯하다. 뒤에 원종조에 파사사를 대진사로 바꾸도록 하는 소를 내리고 있다.

49) 周의 國運이 약해지자 老子가 靑牛車를 타고 멀리 大秦 땅에 갔다는 古事. 나라가 약해지면 훌륭한 이는 떠나고, 국력이 盛하면 훌륭한 사람이 온다는 뜻. 《老子化胡經》에서



성(扇)하게 시행하였다(旋). 有司로 하여금 帝의 寫眞을 가지고 寺의 壁에 轉模(그려 옮김)토록 하였다. 天姿는 淩(凌) 빛나고(彩) 英은 景門에 밝다. 聖蹟은 祥을 태우고(騰) 오래도록(永) 法界에 빛난다. 『西域圖記』 및 『漢 魏史策』을 살펴보니, 大秦國은 南으로는 珊瑚의 바다를 통하고, 北으로는 衆寶의 산을 다하고(極), 西로는 仙境花林을 바라보며(望), 東은 長風弱水에 접하며, 그 土는 火浣布, 返魂香, 明月珠, 夜光壁이 난다. 俗에 寇盜 없고 人에는 樂康이 있다. 法은 景이 아니면 行하지 않고 主(皇帝)는 德이 아니면 세우지(立) 않는다. 土宇(국토와 집)는 廣闊하고, 文物은 昌明하다.

高宗 大帝(650~683) 대단히 恭敬하여 祖를 이어, 眞宗을 潤色케 하여 諸州 各各 景寺를 두도록 하고, 이어 阿羅本을 존중하여 鎮國大法主를 삼았다. 法은 十道에 흐르고 國은 富하여 크고(元) 기쁘게(休) 하며, 寺는 百城(많은 마을)에 가득하고, 家는 景福이 성하였다.

聖歷年(연호명이 아니고 성제의 시대라는 뜻, 측천무후의 통치시대) 釋子(불교도) 用壯하여 口를 東風에 올렸다(騰) ; 낙양에서 景敎 배척의 논전을 성하게 하였다. 先天(712~713)의 末, 下土(도교<sup>51</sup>)의 하급 사제 大笑하여, 西鑄(장안)의 (景敎를) 訕謗하였다. 僧首 羅含<sup>52</sup> 大德 及烈<sup>53</sup> 金方의 貴緒(西國의 귀족) 物外의 高僧(세상을 떠난 고승)들이 있어서 함께(共) 元綱을 진작하고(기강을 바르게 함) 함께(俱) 絕紐를 이었다(維) 玄宗至道 皇帝(712~755)는 寧國 等 五王으로 하여금 親히 福宇에 나아가(臨) 壇場(제단)을 建立토록 하였다. 法棟은 잠시 어지럽다가(橈) 다시(更) 崇尚하였으며, 道石이 한때(時) 기울었다가(傾) 다시(復) 바르게 되었다(正).

天寶(742~756) 初에 大將軍 高力士로 하여금 五聖<sup>54</sup>의 寫眞(五天子の 초상)을 보내어

“老子가 胡를 교화하고 그 결과로 불교 이름으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한다. 景敎도 거기에 따라 本來 老子가 西域을 敎化하고 景敎가 되어 돌아왔다는 뜻을 담아 말하고 있다. 唐王朝는 李氏姓으로 老子를 崇했다. 노자의 성명이 李珣이다.

50) 易經 傳義<sup>12</sup> 咸其輔輿說. 쓸데 없는, 진실되지 않는 말.

51) 後周 職制의 하급 관리. 여기서는 道敎의 下級 司祭를 말한다. 《道德經》 第41章 ‘下土聞道 大笑之’를 인용하고 있다.

52) 羅含 혹은 羅舍의 兩說이 있어 學者마다 다르다. 字形이 비슷하여 필사하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다. 碑文은 舍字이다. 이를 ‘아브라함’으로 強讀하고 있으나 伊藤義敎 및 神直道는 唐의 音韻에 對應이 안되므로 이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伊藤義敎 『조로 아스터교』, 岩波, 1979. 300頁 以下. 神直道 前掲論文

53) 흔히 가브리엘로 強讀하나, 碑文 후기에 보면 시리아어로 “네스토리야敎의 僧 及烈에 관한 逸事”에서 碑文의 及烈과 同一人으로 보았지만 時代的으로 맞지 않는다.

54) 高祖, 太宗, 高宗, 中宗, 睿宗의 五帝를 말함.

寺內에 安置하고, 絹 百匹을 하사하였다. 睿圖(천자의 배려)를 奉慶토록 하였다. 龍攀(천자의 얼굴, 즉 皇帝)이 비록 멀다고 하지만 弓劔은 꺾어 더위잡을 수 있고(攀), 日角<sup>55)</sup>이 舒光을 펴니 天顏이 咫尺(병사가 절을 지키고 천자가 바로 가깝게 있는 듯하다)이라.

(天寶) 三載(744) 大秦國의 僧 佶和가 있어, 별을 보고 교화에 나아가고자(膽星向化) 해(日)를 바라고(望) 尊을 뵈(朝)었다(천자에 侍仕함). 詔하여 僧 羅舍과 普論等 十七人, 大德 佶和와 더불어 興慶宮<sup>56)</sup>에서 功德을 닦도록(修) 하였다. 이에 天(皇帝)寺의 榜額에 題하여 龍書(천자의 글)를 받았다. 寶裝은 빛나고(璫) 아름다워(翠) 灼爍(빛이 빛남)하길 丹霞였다. 睿札(천자 친필의 액자)는 공중에 크게 올려(騰) 激日을 능가하였다. 龍寶(천자의 베푸심)는 南山의 峻極에 비견되고, 沛澤(넘치는 혜택)은 東海와 더불어 깊이(深)를 가지런히 한다. 道는 可하지 않는 것 없고, 하고자 하는 바(所可) 名이 가하니 聖은 하지(作) 못하는 것 없고, 하고자 하는 바 행할 수 있다(所作可述).

肅宗 文明皇帝(756~761) 靈武 등 五郡에 거둬(重) 景寺를 세웠다. 元善(크게 훌륭한 이)의 도움으로(資), 福祚가 열리고(開) 大慶에 臨하여 皇業이 세워졌다(建).

代宗 文武皇帝(762~779) 성운(聖運)을 恢張하고 일을(事) 좇아 무리함이 없었다(無爲; 인위적으로 일을 피하지 않아도 성취하게 되었다). 항상(每) 降誕의 날(辰; 皇帝의 탄생일) 天香을 하사하여 成功을 [祖]에 고하고, 御饌을 나누어 주길 光景衆으로써 하였다. 그 위에(且) 乾(하늘=신의 뜻)은 [주시기를] 美利로써 하시니 故로 能히 生을 넓게 하였다. 聖(皇帝) 元(景教의 근본 가르침)을 體로 삼으니 故로 能히[민을] 亨毒<sup>57)</sup>(키워 기른다)한다.

우리의(我) 建中聖神文武皇帝(德宗, 780~804) 八政을 열어(披) 그로써 幽明을 黜陟하고<sup>58)</sup>(악을 멀리하고 선을 권함), 九疇(법)<sup>59)</sup>를 분명히 하여(闡) 그로써 景命을 維新하였

55) 이마 중앙의 뼈가 日形으로 움기한 모습. 貴人の 相을 나타낸다(《後漢書》, 《南史》 등에 자주 보인다.). 알렉산더 대왕의 畫像에 뿔이 있음은 유명한 일이며,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에도 뿔이 있다. 이는 불가다 譯의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의한 것이라 한다. 기타의 原典에는 ‘뿔을 놓았다.’로 되어 있다고 한다.

56) 太子宮이다. (지도 참조) 태자는 여기서 정부기관과 같은 기관을 설치하고 정무를 보았다. 사회의 사소한 일은 여기서 태자가 처리하기도 하였고, 일종의 태자의 통치 훈련이었다.

57) 亨毒: 키워 기른다. 《老子》 51章. 亨은 形體, 毒은 성격의 형성을 뜻한다.

58) 黜陟幽明: 관원들 중 성적 좋은 이는 승진시키고, 공덕이 없는 이는 내어 쫓음. 明은 공덕있는 이, 幽는 공덕이 없는 이를 말함. 《書經》

59) 尙書 洪範 八政九疇 세상을 다스리는 법도. 팔정 指食(食糧), 貨(經濟), 祀(宗教), 司空(土地), 司徒(教育), 司冠(法令), 賓(儀禮), 師(軍師). 九疇 箕子가 周武王의 물음에 답한

다(景敎의 遜계를 분명히 하였다). 化(교화)는 玄理에 통하여 신을 섬기는 데에(祝) 愧心 없다. 마음은 方大<sup>60)</sup>하여 虛하고, 오로지(專) 靜하면서 용서하고<sup>61)</sup>, 廣慈하여 衆苦를 구하며, 善貸(훌륭한 베품) 羣生에 고루 미치는 것은 우리들(我) 修行의 大猷로써, 汲引의 階의 漸이나라(백성을 끌어올리는 사업이 이제 시작되었다). 風雨가 있으며 天下가 靜한 것처럼, 사람은 能히 다스려지고(理) 物은 能히 청정하고, 存(살아있는 자)은 能히 창성하며, 歿(죽은 자)은 能히 樂이 있으니, 念이 生하면 響應하고 情(애민심)을 일으켜(發) 自誠인 者는 우리(我) 景(敎)力의 能事의 功用이나라.

大施主 金紫光祿 大夫 同朔方節度副使(治所는 靈州), 試殿中監 賜紫袈裟 僧伊斯<sup>62)</sup>는 은화하며 그리고 베풀기를 좋아한다. 道를 듣고는 勤行하는데,<sup>63)</sup> 멀리 王舍城<sup>64)</sup>으로 부터 마침내(率) 中夏(중국)로 왔다. 術이 三代에 높고 藝가 十全에 이르며, 始에는 節을 丹廷(조정)에 바쳤다(效). 곧 名을 王帳에 세웠다(策<sup>65)</sup>. 中書令汾陽郡王 郭公子儀(697-781)<sup>66)</sup> 처음으로 戎의 朔方을 다스리게 되자, 肅宗 伊斯(之)로 하여금 좇아 따라가게 하였다<sup>67)</sup>. [곽자의공의] 臥內(침소)에 見親토록 하였다 할지라도(雖), 스스로 行間(보통의 병사)과 다름없이 하였다. 公의 爪牙, 作君의 耳目이 되었다.

[伊斯는]祿과 賜를 흠어 베풀기를 좋아하고, 집에 쌓아 두지 않았다. 臨恩의 頗黎(은사품인 유리그릇)를 [景敎寺院]에 바치고, 布辭憩의 金闥(휴가에 받은 좋은 음단)을 [대진사에] 깔고, 或은 그 舊寺를 따르며(본래의 모습으로 수복함), 或은 法堂을 重廣하며, 廊宇를 崇飾하니 화려하고 아름다웠다.(翬斯飛).<sup>68)</sup> 더욱 景門에 힘썼다. 仁에 의지하여 利를

천하를 다스리는 大法, 五行, 五事, 八政, 五紀, 皇極, 三德, 稽疑, 庶徵, 五福, 六極

60) 方大. 易經傳義 권2坤 方은 善, 義로움을 지키면 德이 성대하다. 즉 그 행하는 바를 의심치 않는다.

61) 역경 계사 제 6장

62) 中國 碑의 建立者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르다. 時代的으로는 숙종이 伊斯를 朔北府節度使로 보낸 것은 在位 756년에서 761년 사이이며, 碑가 세워진 것은 781년이다. 연대는 멀지 않지만 그는 白衣의 在家 景士이며(출가인은 黑衣), 자신의 공덕을 새겨 스스로 세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석의 맨 위에 景敎 중국 유행비라고 大書하여 碑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63) 聞道勤行 노자 도덕경 제41장 도를 듣고 그대로 행하다.

64) 왕사성. 인도 마갈다의 왕사성이 아니다. 카라코룸 서북쪽 실크로드의 북쪽 통로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이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현장의 대당 서역기에도 나온다.

65) 궁정 내빈의 명부에 이름을 서명함.

66) 구당서116 열전 67.

67) 從邁 詩經 제4편 頌, 魯頌 제3. 泮水 無小無大 從公于邁(애어른 없이 모두 따라가네) 따라가는 뜻.

배풀고, 每歲, 四寺<sup>69)</sup> 僧徒를 모아 虔敬하게 精供을 드리고 모든 것(獻供物) 갖추기를 五旬으로 하여, 주린 자(餓者)는 와서 이것을 먹게 하고(飯之), 추운 자는(寒者) 와서 이것을 입게 하며(衣之), 병든 자(病者)는 치료하여 이를 서게 하며(療而起之), 죽은 자는 장례를 지내어 이를 편안하게 하였다.(葬而安之) 淸節의 達婆(그리스도 敎徒), 아직(未) 그러한 아름다움을 들은 적이 없다(斯美). 白衣의 景士가 이제(今) 그 사람을 본다(見其人). 원하건대 洪碑를 새겨 글로써 休烈(훌륭하고 좋은 업적)을 드러내고자 한다.

### 詞曰

眞主는 無元이며 湛寂常然이로다.  
 權輿(사물의 시작) 匠化하여 地를 일으키고 天을 세웠다.  
 分身(메시아) 代에 나타나 救度하시기 無邊하니  
 日昇하니 어둠 사라지는 것(暗滅), 모두(咸) 眞元을 證하심이다.  
 赫赫하신 文皇, 道 前王을 이음이라.  
 時를 타 亂을 다스리니 乾(하늘)은 트이고(廓) 땅(坤)은 넓어졌다.(張)  
 明明한 景敎 여기(言) 我唐에 들어오니,  
 經을 번역하고 절을 세워 存歿이 舟航한다.  
 百福이 모두 이루어지니(皆作) 萬邦의 즐거움이로다(康).  
 高宗 祖를 이어 새로이 精宇를 지으니  
 和宮은 廠朗하여 中土를 徧滿케 하도다.  
 眞道宣明 드러내어(式) 法主를 봉하였다.  
 人에게 樂康있고 物에 災苦 없다.  
 玄宗 啓聖이시며 잘(克) 眞正을 닦으니  
 御榜은 揚輝하고 天書 아름답게 비친다(蔚映).  
 皇圖는 璀璨하고 率土<sup>70)</sup>는 高敬하다.  
 庶績은 모두(咸) 빛나고(熙)<sup>71)</sup> 人은 其慶에 의지한다.

68) 翬斯飛 시경 소아 사우. 핑이 나는 듯 아름다움, 궁궐의 아름다움을 비유함.

69) 佐伯好郎 前掲書 長安 洛陽 영무 주질의 四寺로 보았다. 리사각은 전 중국 사방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불교에 흔히 있었던 무차공양의 의미로 받아 들이면 사방의 의미겠지만, 景敎 사원의 대표적인 사원이 네 지방에 있어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라면 四個 寺院의 의미가 될 것이다.

70) 詩經 小雅 北山, 率土之濱 莫非王臣. 거느리는 땅 위의 모든 것이 왕의 신하 아닌 것이 없다.

71) 상서요전 潘岳(247-300). 정치가 골고루 잘 행하여져 큰 공적과 많은 일이 이루어짐. 績

肅宗 來復하여 天威(천사)가 御駕 인도하고  
 聖日은 밝음을 펴고 祥風은 어두움을 쓴다(掃夜).  
 祚 皇室에 돌아가고 天氣는 永謝하였다.  
 止沸 定塵하여 造我區夏를 만들다.  
 代宗은 孝義하여 德이 天地에 합한다.  
 베품(貸) 열어 생성하고 物 쌓아(資) 美利하니,  
 香으로써 功을 보답하고 仁으로 베품을 이루니(施)  
 暘谷(해가 골짜기를 비침) 來威하고 月窟(달이 집)에도 모인다(畢萃)<sup>72)</sup>.  
 建中(德宗) 統極하여 마침내(聿) 明德을 닦아<sup>73)</sup>,  
 武는 四溟을 이끌고 文은 清萬域을 맑게 한다.  
 燭은 사람의 감추어진 곳을 비추고 鏡은 物色을 보는 것이다.  
 六舍昭蘇하여 百蠻이 법칙을 따랐다.  
 道가 넓음이여 참으로 신비롭구나  
 역지로 이것(道)을 이름 붙여 三一을 편다.  
 主 能히 짓고 臣 能히 밝힌다.  
 豐碑를 세워 元吉<sup>74)</sup>을 찬탄한다.

大唐建中二年 歲在作噩<sup>75)</sup> 太族月<sup>76)</sup>七日 大耀森文<sup>77)</sup>日建立  
 時法主僧寧怒<sup>78)</sup>知東方之景衆也  
 朝議朗前行台州司士 參軍呂秀巖書

은 功, 威은 모두, 熙는 廣,

72) 양곡 상서요전 월굴 한서 양웅전.

73) 聿修 . 선인의 덕을 이어 닦음. <詩經> 大雅 文王 ‘無念爾祖 聿修厥德’(그대들, 조상 생각을 말고 덕을 닦기만 하길. 서울대 김학주 역)

74) 周易傳義 坤, 黃上元吉 中道를 지켜 아래에 居하면 크게 길하다.(成百曉 역주) 元은 크고 善한 것.

75) 니아석천 대봉재유 일작약. 즉 봉재 辛酉를 말함. 건중 2년 781년

76) 禮記 卷5 月令 제6. 건중太歲 정월을 말함.(권오순 역해 참고)

77) 倭사어 Yak-shamban의 音寫라 한다 日요일의 의미라 한다.

78) 시리아명 하난이슈(漢文名 寧怒). 동방의 景敎徒를 총 통리한다고 하였는데, 동방이 중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를 말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시리아 文字로 그의 지위는 總主教로 되어 있다고 한다.

## V. 景教僧 景淨

景淨은 碑文의 著者이다. 앞서 살펴본 碑文의 내용을 보더라도 폭넓은 한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頌 部分의 詩句의 音韻이 격조 높은 文章 실력의 소유자임을 말해 주고 있다.(물론 본인의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시 그의 직책은 碑文의 後記 部分에 시리아어에 의한 併記 部分이 있다.

아담 司祭兼地方主教兼震旦師父<sup>79)</sup>

司祭와 地方主教를 겸하고 있다. 師父도 司祭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 師父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震旦 師父란 中國의 師父, 中國의 指導者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담은 그의 本名이고 景淨은 中國名인 듯하다.

文의 後記 部分에 碑를 세운 당대의 景教僧(神父) 76명의 이름이 시리아어와 漢文으로 병기되어 있다. 漢文名이 없는 이도 있으며 司祭, 修士, 聖堂지기도 이름을 記錄하고 있다.

당시의 法主 寧怒(하난·이슈)는 “東方의 景衆을 다스린다”의 시리아어 銘은 「우리 조부의 부일에 마리·하난·이슈 카톨리가(名譽僧正) 總主教라고 記錄하고 있다. 이처럼 總主教를 비롯하여 수사 성당직까지 이름을 병기한 것은 당시의 景教僧 전부를 막라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業利의 경우 “助劍校 試太常卿賜紫 架裝 寺主僧 業利”라고 漢文으로 쓰고 시리아어로는 “가브리엘 司祭兼 首輔兼 금단(長安) 과 사락(洛陽)의 教會長”이라 記錄하고 있기 때문이다. 長安과 洛陽의 教會長을 함께 하고 있는가 하면 僧 要寶(마르셀기스)의 경우는 司祭兼地方主教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검직의 경우도 몇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記錄들로 유추하여 볼 때 대부분의 景教승이 막라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景淨을 페르사(胡)인이라고 보는데<sup>80)</sup> 대부분의 학자가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神直道는 中國人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81)</sup>. 李敬云은 시리아인이라 했다. 그는 碑文에 나오는 景教 부흥에 공이 큰 伊斯의 아들이고, 伊斯는 景教僧 Mills의 아들이며 불교승려로 中國에 왔다가 景教로 改宗했다고 한다<sup>82)</sup>.

79) 시리아어 역은 神直道. 전재 논문에 의한다.

80) 佐伯好郎, 「景教 研究」

81) 神直道 앞의 논문.

82) 李敬云, 「景教」 p.42.

이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碑文의 후기에 碑를 세운 연유를 밝힌 부분에 “地方主敎 이사드 브지드의 아들 隨從者 아담”이라 記錄되어 있고, 설명 부분의 번역문에도 나타나 있다.

이오니아(그리스) 기원 1092(서기 781)년 다호리스탄의 마을 바르크의 沈默한 靈魂(逝去) 司祭 미리스의 아들 司祭 兼 王의 마을 冪단(官內=長安)의 地方主敎 마리 이사드 부지드, 구세주의 법과 진단왕에 대한 說敎를 記錄한 이 둘의 기념비를 세운다.<sup>83)</sup>

이 記錄에 의하면 서거한 司祭 미리스(Milisi)의 아들 이스(이자드 브지드)의 아들 景淨이 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등식이 성립되려면 碑文에 등장하는 이스가 이자드 브지드와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당시의 景敎 司祭들이 결혼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먼저 시리아 文字의 이스브질드 혹은 이자드 브지드는 中世 페르시아어로 엄밀히 읽으면 야즈브지드(Yazd-Bazid)로 읽어야 한다고 한다. 후기 中世 페르시아어에서 Yazd가 Izad로 된다. 이러한 발음상의 문제가 碑文 중의 이스와 碑의 건립자중의 한사람인 冪단(관내=長安)의 司祭兼 主敎인 Yazd-Bazid가 동일인으로 취급된 것이다.

이스가 朔北節度副使로 파견된 때가 肅宗(756~761帝位) 년간이고, 碑가 세워진 것은 781년이다. 연대 차이는 꼭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이스는 紫架娑를 하사 받은 司祭이기는 하나 白衣의 景士이다(左家人). 그 위에 자신의 공적을 冪단 전체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스의 唐音은 lisie이다. Yazd-Bozid와는 대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天道朔源에서는 이스를 이삭(시리아어 음 Yshaq)으로 읽고 있다.

다음은 景敎 司祭의 결혼 문제이다. 白衣(제가)인 경우는 결혼을 하였겠지만 黑衣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네스토리안들이 타락을 했고 그로 인해 中國에서 景敎가 탄압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이유로 들고 있지만 타락한 것하고 司祭이며 長安의 地方主敎가 공공연히 길이 기념할 碑文에 자식을 밝힌다고는 볼 수 없다. 同時에 白衣가 長安의 地方主敎일 수 있는 가도 의문이 된다.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몰린 것은 宗教의 개혁문제가 아니다. 마리아의 人性과 神性의 문제가 발단인 것이다.

네스토리우스(Nestorius)는 AD 428년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의 主敎(bishop)가 되었다가 敎理 論爭에 말려 이집트로 추방되었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는 예수는 神性과

83) 神直道 앞의 논문.

人性의 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그릇에 불하므로 마리아를 神格化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431년 에베소 公議會에서 그는 이단으로 몰리고 主教의 지위 및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되어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죽었다.

에베소 公議會는 특히 정치적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sup>84)</sup>. 로마제국과 페르시아의 적대관계는 그리스 道敎의 교세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宗敎의 분리를 형성시켰다<sup>85)</sup>.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되자 그의 추종자들은 박해를 피해 시리아로 옮기고, 스스로를 동방교회라 불렀다. 로마교회의 네스토리안이라는 표현은 멸시와 차별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무렵 시리아, 이집트 등지에는 저명한 금욕주의자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시리아의 시메온(symeon), 그의 제자 다니엘 (Daniel 409~493) 등은 특히 저명하여 시메온의 경우는 에베소 및 칼세돈 宗敎회의에서 그의 동의를 구할 정도였다 한다.

그러한 곳에서 동방교회라며 스스로 긍지를 지키는 동시에, 멸시와 차별 가운데에서도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단으로 몰린)을 따르는 司祭들의 범규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타락한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전도여행을 하였겠는가. 생명 부지를 위한 망명이라면 모를까. 콘스탄티노플 제국에서 추방당한 景敎徒들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피신하고 사산조의 페르시아까지 피하였다. 페르시아 皇帝의 관대한 처분으로 세레우케이아를 總主教로 하여 차츰 교세를 확장하였다. 성당과 함께 부속병원 도서관 등을 세워 전도에 힘썼고, 5~6세기경에는 소그디아나(Soghdiana)로부터 동터키스탄까지 전도하여 그 지방의 돌궐인(터키족) 중에서 기독교로 改宗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차츰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스가 佛敎 僧侶였다가 中國에 와서 景敎로 改宗했다는 주장은 佛敎 文獻 중에 이스라는 인명이 나오는 사실과 碑文에 王舍城에서 왔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짐작한 듯하다. 佛敎 文獻의 이스는 기원 전후의 일을 記錄한 것이<sup>86)</sup>, 왕사성은 인도의 王舍城이 아니

84) Friedrich Loofs 『Nestorius and his Place in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Professor of church history in the university of hall-wittenberg, Germany. Lenox Hill pub. 1914 Reprint 1975.

남영환 著, 세계기독교회사, 도서출판 영문, 1992, p.64以下.

J.F.Bethune-Baker 『Nestorius and his Teaching』 Cambridge uni.1908, p.16以下. 그는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라고 주장했다.

85) 헨리체드워, 서영일 역, 1983, 『초대교회사』, 기독교 문서선교회, p.241이하.



라 중앙아시아의 알렉산드리아시 가까운 곳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이다. 실크로드를 통해 터어키와 시리아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이다.

그가 中國에서 景敎 寺院을 화려하게 고치고 음식을 장만해서 수많은 사람을 자주 대접하려면 무사의 급료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비록 紫袞裘를 하사 받았지만 그 역시 경제와는 별 관계 없는 것이다.

그가 승려 출신이었다면 그러한 경제력이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光祿大夫로 봉하여졌지만 봉하여진 時期가 분명치 않고, 공이 있고 나서 봉하기 때문에 食邑이 따르지 않는 명예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역시 그의 경제력을 뒷받침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中國에 景敎가 전하여진 것은 碑文에 의하면 唐太宗 貞觀 9年(635)이다. 그러나 민간을 통한 전래는 훨씬 이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東西의 교류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대상들에 섞여 景敎徒가 中國에 왔을 확률이 많다.

碑文에 의하면 阿羅本이 전했다 한다. 阿羅本을 佐伯(사이키) 등은 아브라함으로 강독하고 있으나<sup>87)</sup>, 神直道の 阿(a)는 페르시아어 amos(불사, 영수)의 첫머리 글자를 따고, 羅本은 페르시아어 ruwan(魂)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88)</sup>.

阿羅本이 長安에 이르자 宰臣 方玄齡<sup>89)</sup>을 보내 의장병의 호위를 받으며 賓으로 맞는 것을 굉장하다고 李敬云은 말하고 있으나, 이는 한낱 통상적인 의례에 불과한 것이다. 지니고 온 소개장이나 바치는 물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다.

舊唐書太宗本紀에 보면 貞觀 8년에는 龜茲, 高昌, 女國, 石國에서 使臣을 보내 朝貢했다고 했다. 이들 중 누군가의 소개장도 함께 가졌으리라고 보는 것이 외교관례상 의전이기도 하다.

高宗 朝永徽 6年(655) 3월, 玄奘 귀국시에는 먼저 御書를 보내 위로하고 玄奘은 이를 정중히 영접하였다. 城門을 들어설 때 太常卿(儀典 담당) 王道中이 九部樂을 갖추어 영접하고, 화려하게 장식한 수레(綵車)가 千余輛이 줄이었다 한다. 宮中까지 九部の 음악을 연주하며 행진을 하였다. 皇帝는 직접 安福門에 나아가 영접하였다. 九部란 서양, 천축, 고려, 구자, 安國, 疏勒, 康國, 燕國, 清樂의 음악을 말한다. 玄奘이 歸國하자 그의 역경장으로 大慈恩寺를 짓게하고 皇帝가 직접 碑文을 쓰고 있다<sup>90)</sup>.

86) 민희식,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서문.

87) 前掲書, 『그리스도교 대사전』, 敎文館에서도 아브라함의 필사라 하고 있다.

88) 神直道, 「景敎碑文遺經의 漢字表記에 보이는 塞外的 要素에 대하여」, 日本 오리엔트기 념 논문집.

89) 新唐書, 卷2, 本紀 第2, 당시 그는 尙書左僕射였다.

90) 舊唐書, 卷四, 本紀 4, 영희 7년(656) 4월.

同年十一月王子顯(뒷날 中宗)이 태어나자 삭발을 시키고 玄裝의 제자로 삼고 玄裝은 그에게 佛光玉이라는 불명을 지어 주었다<sup>91)</sup>.

經典의 번역을 書殿에서 하도록 한 것은 불편 없이 하도록 하는 배려도 있었겠지만 번역 道場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궁중의 연구실을 쓰도록 한 것이다. 貞觀 9年(635)에 阿羅本이 中國에 왔고 貞觀 十二年(638) 秋七月 碑로서 信奉(景教를)해도 좋다는 소를 내리고 義寧坊에 大秦寺를 짓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한다.

그로부터 143년이 지나서 景教流行中國碑가 건립된 것이다. 景教의 波斯寺를 대건사로 바꾼 것은 玄宗 時代이다.

## VI. 般若三藏과 大乘理趣六波羅蜜經

『全唐文』 卷55에 唐 德宗(779~804 帝位)의 「大乘異趣六波羅蜜經序」가 있다. 德宗이 지은 것이다. 이 經은 「理趣六波羅蜜多經」, 혹은 「六波羅蜜經」, 「理趣六度經」으로도 불리는 반야계의 경전이다.

序文에서 『六波羅蜜多經』은 象法の 律梁이며, 度門의 圓極이다라고 定義하고, 經을 說하게 된 인연을 이야기한 다음, 經이 漢譯되는 과정을 記述하고 있다. 當時의 皇帝인 德宗의 序文이다.

闍賓國沙門 般若<sup>92)</sup>가 受旨하고, 光宅寺 利言<sup>93)</sup>이 翻譯하여 當時의 大德인 資聖寺 道液<sup>94)</sup>, 예천사 초오<sup>95)</sup>, 자은사 응진<sup>96)</sup>, 장엄사 원조<sup>97)</sup>, 광택사 도안<sup>98)</sup>, 서명사 원조<sup>99)</sup>, 관공 양수<sup>100)</sup>들이 증명 운문을 하였다고 記述하고 있다.

91) 『續高僧傳』 卷4, 大正藏 50, p.446하 以下.

92) 宋高僧傳 卷3, 大正藏 50, p.722상.

93) 上同, 卷2, 大正藏 50, p.716중.

94) 上同, 卷2, 大正藏 50, p.716중.

95) 上同, 卷2, 大正藏 50, p.716중.

96) 上同, 卷2, 大正藏 50, p.716중.

97) 上同, 卷2, 大正藏 50, p.716중.

98) 宋高僧傳, 卷14, 大正藏 50, p.793중.

99) 宋高僧傳, 卷15, 大正藏 50, p.804중.

100) 宋高僧傳, 卷 5, 大正藏 50, p.737하.

이 大德들이 번역문에 대하여 證明, 正義하고 輝潤元文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표현은 그간의 경전 번역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번역, 감수, 운문 특히 운문은 몇 차례씩 하는 것이 통례였고 당연한 일임에도 위의 문장을 쓰는 데에는 그만큼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西明寺는 玄奘(608~664)이 인도에서 645년 돌아오자 高宗(649~683)은 그가 가지고온 經典의 번역 도량으로 짓게 한 절이다. 당시 長安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절이었다 한다. 羅什의 번역 도량은 西明閣이었다. 이에 따르는 寺名인 듯 학문 도량으로 많은 학승들이 머물던 곳이다.

이곳에 주석하던 원조는 당시 학승 중의 한 분이였다. 그의 著書 중에 『貞元新定釋敎目錄』(이하 貞元錄)이 (德宗 정원 16년 800)있다. 이는 『開元釋敎』<sup>101)</sup> 20卷이 나온 이후 약 70년 동안의 역경에 관한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물론 『開元錄』 이전에도 소급하고 있다. 『貞元錄』 권17에 般若 三藏의 「續翻譯經記」가 실려 있다.

罽賓의 龍象이 南海를 거쳐왔는데 六波羅蜜經을 가지고 왔다. 大臣이 聞秦하자 帝는 有司(관리)를 시켜 碩德들을 精選하여 西明寺에서 翻譯하게 하였다. 法司의 이름은 般刺若라 한다. 北天竺境의 迦畢試國人이라 記述하였다.

續註를 달고 般刺若是 唐言 智慧라 하고 迦畢試國은 罽賓國이라 하였다. 이 記錄으로 보면 般若와 般刺若是 동일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般刺若의 수행과 학업의 과정, 中國교포의 뜻을 두고 南海 특히 獅子國 東岸에서 여행에 필요한 資糧을 모아 바닷길로 建中 3年(782) 中國에 이르렀고, 4년 뒤 貞元 2年(786)에 외사촌 형제인 神策正將 羅好心を 만났다. 그의 요청에 의해 번역을 하는데 이 경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된 경이다. 페르시아어를 아는 이를 찾아 波斯僧 景淨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다. 이 부분의 「貞元錄」의 記錄을 보면 이렇다.

魚 大秦寺 波斯僧 景淨依胡本 六波羅蜜經 譯成7卷 時爲般若 不閑胡語 復未解唐言 景淨不識 梵文 復未明釋敎 雖稱傳譯 未獲半珠 圖竊虛名 匪爲福利 錄表聞秦 意望流行 聖上 睿哲文明 充恭釋典 察其所譯 理味詞疎..

(大秦寺의 波斯僧 景淨에 의지하여 胡本을 주어 六波羅蜜經 7卷을 이루었다. 이때 般若는 胡語를 알지 못하였고 唐言 역시 이해하지 못하였다. 景淨은 梵文을 알지 못하고 그 위에 釋敎에 밝지 못 하였다. 억지로 번역했다 하나 의미를 얻지도 못하고 논리도

101) 智昇(658~740) 176名의 역경승과 2275部 7046卷의 역경에 관한 연도, 지역, 이명, 관계자, 장소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함.

반밖에 피하지 못했다. 피하여 흠치는 것은 이름을 헛되이 하고 福利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내용을 모르고) 錄表하여 秦하길 流行하길 바란다 하였다. 聖上준철(德宗)은 문명하고 釋典을 대단히 공경하였다. 그 번역한 바를 살펴보니 理는 어둡고 詞는 거칠었다....)

文面을 봐서는 佛敎 經典의 번역을 부탁 받은 景淨이 그것을 기독교식으로 번역하여 전도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구나 당시 이런 사정을 가까이에서 보았을 원조의 記錄이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런 일이 있고 나자 德宗은 敎法 區分을 분명히 하여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牒脂를 내리고 있다. 이어 德宗은 右街功德使인 王希遷<sup>102)</sup>으로 하여금 中更 翻譯토록 하고 그 牒脂를 貞元 4年(788) 四月 十九日 京城諸寺에 보냈다. 梵本經을 西明寺로 보내는 과정을 보면, 右神策軍大將軍王孟步驃騎大將軍馬有隣 등으로 호송케 하고 있다<sup>103)</sup>.

麗賓國 三藏 般若가 梵文을 정리하고, 광택사 사문 利言이 범어를 번역하고 西明寺 원조가 필수하고, 자성사 도액, 西明寺 양수, 장엄사 원조는 운문하고, 자운사 응진, 예천사 초오, 광택사 도안, 西明寺 변공 등이 증의토록 하였다.

이어 梵本經을 군사들의 호의로 西明寺에 보내고 錢일천백, 茶삼십천, 香일대합을 보내 공양토록 하였다고 記錄하고 있다. 李敬云은 『景敎』 103쪽 이하에서 六波羅蜜經의 번역본이 十卷本과 七卷本卷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譯經僧이 별로 없어서 景淨에게 부탁한 것 아니냐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sup>104)</sup>.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 “기독교를 佛敎의 번역자로 삼은 것은 中國 번역작품에서 공전 절후의 사건이기에 되도록 상세히 고증을 했다.” 말 그대로 문맥이 맞지 않은 말들은 고사하고 상세히 고증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 경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어 있는 經이었고<sup>105)</sup>, 조카의 청으로 사사로이 번역하였다는 점, 景淨이 페르시아어에 밝다는 점, 왜 德宗이 나서서 각각의 길을 가도록 하였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이며, 또 마치 景淨이 번역한 것이 유통되었던 것

102) 功德使는 宗教 담당 최고위.

103) 宋高僧 卷2, 大正藏 50. p.716중. 全唐文 卷55. 德宗의 序文이 있다.

『貞元錄』에는 호위 장군들의 직책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圓照가 직접 경험한 것이므로 상세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神策軍 및 驃騎軍은 근위군이다.

104) 7卷本이 유통되고 있었는가를 것을 먼저 살펴야 하고, 왜 이 경이 페르시아어로 되었는가를 살펴야 한다.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105) 많은 경전들이 페르시아어, 돌궐어, 코탄어 들로도 번역되어 있었다. 번역 사본들의 파편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 德宗이 주선해서 번역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 經은 貞元 4년에 시작하여 貞元 5년 2월에 마쳤다.

한편 般若 三藏은 八卷本 『心地觀經』을 번역하였다. 『心地觀經』은 六波羅蜜經과는 관계가 없는 經이며 당시 獅子國(스리랑카)에서 보내온 것이다. 般刺若 三藏이 獅子國 東岸에서 바다를 건널 준비를 했다는 記錄에서 般刺若 三藏이 전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또 華嚴經과 心地觀經을 혼동하여 전하지 않고 있다 하는데 이는 좀더 확인을 하고 서술하였으면 한다. 華嚴經은 80卷本 후반의 40卷을 번역한 것이며 皇帝는 손수 經에 序文을 짓고, 般若에게 三藏의 호와 자의를 하사하였다.

## VII 贊寧이 보는 異國 宗教

贊寧(930~1001)은 宋代에 初의 學僧이다. 그는 勅命으로 太平興國 7년(982)에 『송고승전』을 편집하였다. 단흥 원년(988) 太宗에게 봉헌하였다.

序에 의하면 도선(596~667)의 『高僧傳』 기재의 최후인 정관 19년(645) 이후의 高僧들의 전기를 모았다고 하였다. 주로 唐 五代의 高僧들의 행적을 집성하였다. 그는 남산을종 제10조 법영의 문하로 고승전의 기술 방법도 『續高僧傳』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唐末 五代 전난에 의하여 많은 전적이 없어진 宋初 文化 復興의 일환으로 『太平御覽』, 『冊府元龜』, 『太平廣記』 등이 편찬될 무렵이었다. 『鷲嶺聖堅錄』도 함께 편찬되는데 贊寧은 그 일에도 종사하고 있다. 전란으로 많은 자료들이 없어져 버린 시대여서 高僧傳을 편찬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은 듯 직접 사료로 비명, 야사 종류까지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宋高僧傳의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106)</sup>.

『宋高僧傳』에 대한 비판이 혜흥 각범(1071-1128)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비판의 내용은 당송대에는 선사가 주를 이루는데 修禪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강사의 편찬이므로 의식 무의식 중에 자료의 편견이 있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四庫全書의 총목제요에 약간의 史的 오류가 있기는 하나, 각 傳의 말미에는 論斷이 부가되어 있고, 傳授의 원류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고전서의 총목제요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술상 약간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자료에 충실하려는 역사가였으며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동시에 당시의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6) 收田諦亮, 1979, 『中國 近世 佛敎史 研究』, 동양학연구소 편, p.96 以下.

그의著書 중에 당시의 敎團史라 할 수 있는 『大宋僧史略』 3권이 있다. 978년부터 999년에 걸쳐 찬술된 것으로 佛敎 敎團의 制度, 儀禮, 戒律 등 교단의 모든 사안을 記錄하고 있다.

그는 序文에서 『弘明集』 『高僧傳』 만으로는 佛敎史를 서술하는데 충분치 않아서 본서를 집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07)</sup>. 앞서 말한 바처럼 당말 오대 전란으로 교단이 廢敝하여진 시대적 상황은 그가 호교론적 입장을 취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僧史略』 제3권 말미에 摩尼敎에 관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僧史略』 제55 『大秦摩尼』 조를 보면 당시의 摩尼敎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여러 宗敎 사정을 미루어 볼 수 있다. 贊寧은 摩尼敎와 조로아스터(拜火敎), 景敎를 혼동하고 있다. 景敎가 스스로의 정체성이 희박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贊寧은 摩尼敎와 조로아스터교도 혼동하고 있다.

“火요의 敎法은 본래 大波斯國에서 일어나 蘇魯支라고 부른다.” 라고 기술하고 이어 “뒷날 中國에서도 행하여졌다. 貞觀 5年(631) 傳法(師) 穆護何錄이라는 이가 있어 祆敎를 가지고 關에 들어가 聞秦하였다. 皇帝는 勅을 내려 崇化坊에 祆寺를 짓게 하였다. 大秦寺라 하고 혹은 波斯寺라 불렀다.” 祆敎는 그 信仰 형태에 따라 拜火敎라고도 부른다.

조로아스터는 사산조 초기에 국교로 인정되고 中國과의 빈번한 교류의 따라 中國에 일찍이 전하여 졌다. 이미 南北朝 時代에 전하여져 中國人들 사이에 숭상하는 이들도 있었다<sup>108)</sup>.

隋代의 祆敎 신자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두었다. 薩甫 혹은 薩保가 그것이다.

唐代에 이르러서는 薩保라 하였고 高祖 武德 4年(621)에는 長安의 布政坊에 요사를 세웠다.

大食人이 波斯(페르시아) 및 중앙아시아로 진출하자 祆敎徒들은 더욱 中國으로 모였고 唐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薩寶(視正五品), 薩寶府, 祆正(同四品), 府史(同五品) 등의 官을 두었고, 그 官吏는 胡人으로 하였다<sup>109)</sup>.

祆敎는 주로 西域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만 신도가 있고 中國人은 극히 적었던 듯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大秦寺는 景敎 寺院이었다. 景敎 寺院이 波斯寺에서 大秦寺로 바뀐 것은 玄宗 天寶 4年(768)임은 앞에서 살핀 바 있다. 이러한 혼동은 100년 이상을 같은 波斯寺로 불리어 왔던 점, 中國人 신도가 별로 없었던 점, 교리체계가 中國人들에게는 크게 다르지 않게 보였다는 점들이 판단의 착오를 하게 한 것이 아닐까.

107) 大宋僧史略 卷1, 大正藏 54, p.234.

108) 魏書, 卷13, 霍太后傳. 隋書 卷7, 禮儀志

109) 通典, 卷40, 職官.

마니(mani)교는 한때 사폴(sahpuhr) 일세의 신봉을 얻기도 하였지만 국교인 조로아스타 司祭들의 탄압을 받아 本國에서 추방당하여 東方으로 나아가 카슈밀, 터키스탄 코탄(우진) 호라산 등 여러 지방을 편력하면서 그 가르침을 폈다. 일시 귀국하였다가 274년 경 발각되어 처형당하고 그의 추종자들도 순교를 하였다.

本國에서는 傳道 금지령이 내려 순교를 모면한 교도들은 로마제국령으로 도피하여 한 때는 융성하기도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한때는 摩尼敎도였다.

동쪽으로는 주로 터키스탄 위글인들 신도들이 많았다. 中國에는 이들 西域으로부터 이주한 위글인들에 의해 퍼져 나갔다.

玄宗은 摩尼敎를 사건이라 못 박고 中國人들의 신봉을 금하면서, 이는 西域인들의 항법이므로 위글, 돌궐(터키스탄), 소크트 등 타민족의 신봉은 허가하는 칙서를 내렸다<sup>110</sup>).

則天武后 당시 摩尼敎徒들을 위한 大雲 光明寺가 위글인들의 모여 사는 곳에 세워지고 寺額을 내리기도 하였다. 大歷 6年(771)에는 勅하여 荆, 越, 法 等에 역시 大雲 光明寺를 짓도록 하였다<sup>111</sup>). 이러한 기사를 통해 中國 특히 당초의 宗敎 政策을 읽을 수 있다. 이민족의 文化, 宗敎 등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sup>112</sup>).

贊寧은 祆寺, 大秦寺, 波斯寺 마니 등을 같은 것으로 보았던 듯하다. 이들에 대한 자료를 수중에 넣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맺는 말

唐初는 이민족의 문화에 대하여 대단히 관용적이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선 그들 출신이 武川鎭 出身으로 匈奴나 돌궐, 위글인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 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적극적인 외교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唐末에 이르러서는 皇室이 中國의 보수적인 사상에 깊이 심취하게 되고 한편 皇室의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지식인들 사이에 中國의 文化的 정체성을 추구하는 풍조가 일어나기

110) 僧史略 앞인용.

111) 旧唐書, 卷18上, 佛祖統紀 卷42, 僧史略

112) 돈황의 고문서에 景敎, 조로아스타, 摩尼敎 文獻들이 약간 발견된 바 있다. 大正藏 卷 88에 실려 있다.

시작했다.

唐 皇室은 隴西 李氏이다. 그들은 春秋時代의 老子 李聃를 그들의 始祖로 받들었다. 唐 書의 玄宗때만 보더라도 貞元19年(731) 五嶽에 老君廟를 두도록 하였고, 동 21년(733)에는 과거시험에 老子를 尙書, 論語와 함께 치르도록 하였다. 또 29년(741)에는 兩京과 諸州에 玄元皇帝廟를 두도록 하여 현학을 숭상토록 하고, 생도를 두어 老子, 蔣子 등을 배우도록 고시를 하였다.

寶力 二年(743)에는 玄元 皇帝를 大聖祖玄元皇帝로 추존하고 兩京의 崇玄學을 승현관으로 하고 그곳의 박사를 학사로 하였다. 玄元廟를 太靑官으로 바꾸고 同 3년에는 銅으로 天尊과 佛像을 造成하여 開元官과 開元寺에 안치하였다.

唐 皇室의 심정적 宗教는 皇老道였음을 알 수 있다. 현종의 金剛經序는 지금도 전하여지고 있듯 佛敎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의 宗教는 皇老道였다. 그가 大秦寺에 高力士를 보내 五皇帝를 모시도록 한 것도 唐 皇室에 충성하고 그 지배하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것이다.

佛敎는 中國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외래 宗教가 아닌 그들의 宗教, 그들의 文化로 인식되었다. 그 좋은 예가 佛敎 經典을 내전이라 하였고, 유교는 국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전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道敎는 佛敎에 의하여 宗教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정비되고 교세를 갖게 되자 佛敎와 경쟁의식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唐文拾遺 卷1에 太宗의 「先老後釋詔」가 실려있다.

老敎와 孔敎는 此土에 先인 宗이다. 釋敎는 後에 일어났다. 客禮記로 숭앙하였다. 말하노니 老가 앞서고 다음 孔, 뒤에 釋이 하도록 하라.

續高僧傳에서 인용 記錄하였다.

皇帝의 詔에서 보는 것처럼 때때로 道敎쪽에서 문제를 제기해 오기도 하였다.

武宗(841-845)의 會昌 年間의 破佛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政策의 實現이었다. 破佛은 佛敎가 세력이 융성했던 탓으로 佛敎 中心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武宗의 宗教 政策이었고 道敎만을 제외한 宗教의 일소 政策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武宗이 죽고 宣宗(847-859)이 즉위하자 다시 佛敎는 복원되지만 기타의 宗教는 거의 소멸되어 버렸다. 결국 자생력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佛敎는 그 동안 道敎와의 관계에서 道敎와 비교하여 왔지만 景淨의 경전 오역 사건으로 인하여 약간의 자극을 받았던 듯 하다. 그러기 때문에 大乘理趣般若經 번역에 唐代의 大德들이 많이 동원되고, 그러한 사실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記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長安城坊圖

武伯綸編著「西安歷史述略」1879年의 地圖

